

아이퀘스트, 작년 매출액 263억원 '역대 최대매출 달성'

- ▶ 구독형 ERP 제품 매출 증대 및 자회사 '디포커스'와 시너지 통해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
- ▶ AI 플랫폼 개발, 제휴/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확대 및 지속 발굴

B2B(기업간거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아이퀘스트(262840, 대표이사 김순모)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263억원으로 전년대비 68.2%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작년까지 20.6% 증가하였다고 7일 밝혔다.

아이퀘스트의 사상 최대 실적 성장은 대표 제품인 SaaS 방식의 '얼마에요ERP'의 안정적인 실적과 구축형 ERP제품인 '아이퀘스트 B1'의 수주 증가와 함께 지난해 사업 시너지 확대를 위해 인수한 '디포커스'의 실적이 반영 돼 성장폭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이퀘스트는 ▲소상공인 대상의 사업관리 서비스 '얼마장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 '얼마싸인' ▲GPS 기반 근태관리 서비스 '얼마근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AI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등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공격적인 시장 공략과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3일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인 드롭박스와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연이어 28일 AI비전GPT 플랫폼기업 스누아이랩과 B2B 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수한 IT 컨설팅/솔루션 회사인 디포커스와의 사업 시너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대상의 서비스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아이퀘스트와 다수의 대기업 레퍼런스를 통해 검증된 BI 기술력을 보유한 디포커스 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향후 디포커스의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전망된다.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이사는 "지난해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와 종속회사 편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비즈니스 솔루션을 B2B 시장에 특화 된 AI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와 업무 제휴,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